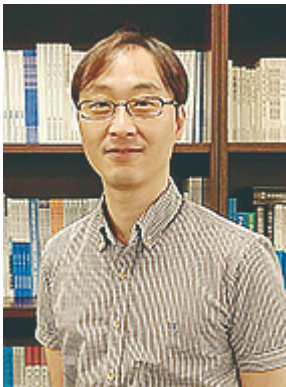


칼럼 /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산업·어촌, 비즈니스로 사고 전환 필요

일자: 2025-06-13 10:35

수정: 2025-06-16 09:39



인류에게 농업과 수산업은 가장 친숙하고 오래도록 영위한 산업이다. 식량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현대로 이어졌고 미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業)이다. 오늘날에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농업과 수산업의 구성원에게 금전적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가=영세’ 개념 만연

한편 농업의 구성원을 우리는 농업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기본 단위는 농가(農家)이다. 과거부터 농사일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가장 기본적인 노동력을 가족 구성원으로 충당했다. 이때부터 가족농(家族農)이라는 개념이 발달했고 농업 구성원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가족 노동의 개념은 수산업에서도 차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바로 어가(漁家)라는 개념이다. 어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력을 가족 구성원에서 공급받고 이것이 기본 단위로 굳어졌다. 어업인의 수를 헤아릴 때 ‘어가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지역공동체와 노동 및 경영공동체가 결합한 형태의 어촌계도 있지만 이 역시 그 근원에는 어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에서 어가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가는 고민해야 할 화두이다. 가족 노동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었다. 어가는 ‘영세하다’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고 영세성이 곧 수산업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어업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부에 의존적인 산업으로 전락했다. 또한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막무가내식 지원 요구’가 만연하게 되었다.

게다가 기존의 어업노동력은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공장 노동력 등으로 이탈하였고 이런 경향은 점점 더 가속화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 어업 인구의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부부조업’, ‘나홀로 조업’과 같은 말이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과거에는 어업노동력을 가족 내에서 공급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노동력을 외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가라는 개념이 더이상 적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업경영체’로 인식 전환해야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어가가 아닌 ‘어업경영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가에서 수산물의 생산이 생계를 잇는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어업경영체로서의 수산물 생산은 소득과 이윤을 얻기 위한 활동, 즉 경영활동이다. 정부에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권장하고 있고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경영은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효율성 판단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기며 경영 규모의 조정도 탄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변화는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더욱 시장 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 기존 생산 중심적인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 사고로의 생각 전환도 필요하다.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선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전환은 어업인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어촌계, 자율어업공동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지 수산물 생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된 수산물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어촌계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 여러 어촌계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린 생각이 중요하다. 어촌계의 폐쇄성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방성을 키워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비즈니스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고 전환에 맞춰 비즈니스를 장려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수산업·어촌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생산자 단체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수산물 가공인프라 확충, 판매망 등의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6차 산업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함께 어촌계 사무인력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어업인, 여성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모델 개발도 시급하다. 젊은이가 수산업에 발을 내디디고 사업하기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비즈니스 영역, 기회 많아

사람들은 수산업을 1차산업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수산업은 수산물의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을 통한 제조, 유통 등 2차와 3차산업을 모두 아우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수산업을 근본이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말한다. 정부의 어촌정책 중 대표적인 6차 산업화도 이런 바탕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수산업도 비즈니스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여느 부문에 비해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오늘날 수산업·어촌은 영세성, 만연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후변화로 더 곤궁해지고 있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 수산업은 영세하고 어업인은 가난하다는 기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영역이 바로 수산업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수산업·어촌이 비즈니스로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희망한다.

[어민신문=어민신문] eomin@eomin.co.kr